

감정에 관한 행화주의: 프린츠의 제한된 행화주의를 중심으로

양선이*

【요약】

이 논문에서 나는 감정과 인간의 행위와의 연관성을 설명한다. 이를 위해 행화주의를 감정 설명에 적용한다. 감정에 관한 행화주의에 따르면 감정은 세계에 관한 객관적 특징을 표상하지도 않고 반응 의존적 속성도 아니다. 행화주의에 따르면 감정이 세계를 표상한다기보다 감정이 있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은 특별한 종류의 속성들을 존재하게 한다bring into. 달리 말하면, 인지는 미리 주어진 객관 세계에 대한 선행적 주체의 표상적 인식이 아니라, 신체를 가진 세계 내 존재가 세계와 마음을 창출(또는 생성)하는 행위이다. 이 논문에서 나는 바렐라 전통을 따라 감정에 관해 신체화된 활동을 중점으로 논한다. 즉 감정은 표상이 아니라 살아온live d 신체를 통해 느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나는 정신적 표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감정을 오직 신체적 상태와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후토 (2012, 2013)의 급진적 행화주의는 피하면서 프린츠 (2004)의 초기 입장에서처럼 감정을 두뇌에 국한된 표상으로 보지 않는다. 그보다는 감정을 환경과 유기체의 상호작용 영역 안에서 창발하는 것으로 보는 행화주의를 제안한다. 이를 위해 나는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주요한 개념인 ‘어포던스(affordance 행위가능성)’개념을 다루면서도 김슨의 어포던스, 즉 환경이 유기체의 행위를 유발하는 속성으로서의 어포던스를 받아들이지 않고 프린츠의 최근 이론(2018)을 중심으로 대안을 제시한다. 이에 따르면, 결국, 감정과 인간의 행위의 연관성은 감정 어포던스를 통해 설명할 수 있는데, 감정적 어포던스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만 행위를 촉발한다는 의미에서 유기체의 신체적 상태 의존적이다.

【주제어】 감정의 내용, 감정의 규범성, 행화주의, 어포던스, 신체화된 감정

* 한국외국어대학교 미네르바 교양대학 교수

** 이 연구는 2023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I. 들어가는 말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감정에 관한 철학적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2000년 초에는 감정을 판단(Nussbaum, 2001, 2004)이나, 지각(Prinz, 2004)과 같은 일종의 표상적 상태로 보는 입장이 주류를 이루었다.¹⁾ 그러나 이러한 이론들의 문제는 표상되지 않지만 생기는 감정, 예를 들면 비합리적 감정, 신체화된 느낌으로서의 감정, 맥락적 감정, 행동과 연결되는 감정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이다(Solomon, 1993; Nussbaum, 2001; Prinz, 2004). 이 논문에서 나는 Nico Frijda(1986)의 “행위 경향성action tendency”과 Griffith와 Scarantino (2009)의 ‘어포던스’ 개념을 받아들여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한다.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새로운 접근은 비 표상적 감정, 예를 들어, 비합리적 감정, 맥락적 감정, 신체화된 감정과 행위와의 관련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새로운 접근을 위한 철학적 토대로서 감정존재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감정의 내용을 우리 앞에 미리 주어진 세계에 대해 표상으로 보기보다는 우리가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창출’되는bringing forth 속성들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입장을 행화주의enactivism라고 부를 것이다.²⁾

나는 행화주의를 감정과 인간의 행위와의 연관성을 해명하는데 적용할 것이다. 감정에 관한 행화주의에 따르면 감정이 세계를 표상한다는 표현은 정확하지 않다. 그보다는 감정은 감정을 느끼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속성들을 존재하게 한다bring into는 것이 정확하다. 이때 “생겨나게 함 to

1)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논문 2007, 2013, 2014를 참고하십시오.

2) 국내에서 행화주의 논의는 ‘체화된 인지’와 관련하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nactivism’을 이영의 (2018), 이기홍 (2017)은 ‘행화주의’로 부르고 있으며, 배문정은 ‘실행’으로 부르기를 권한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인지’에 관해 논하고 있다. 필자는 enactivism을 이영의, 이기홍을 따라 행화주의라고 부를 것이며, 행화주의를 ‘감정’을 설명하는데 적용하고자 한다.

bring forth”이라는 개념은 표상representation에 관한 표준적 설명과 대조되는 의미이다. 표상representation에 관한 표준적 설명은 마음속에 있는 모델이나 기호들에 의해 재현되도록 기다려지는 마음 독립적인 실재, 속성들 그리고 관계들이 있다고 가정한다. 이에 반해 ‘행화enaction’의 관점에서 보는 세계(환경)는 유기체가 정신적 프로세스를 가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세계에 추가하는 일종의 만듦, 창출enaction 과정을 함축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enactivism을 ‘구성주의’라고 부르는 학자들도 있다.³⁾ 체화된 이론들 embodied theories은 어떻게 이와 같은 ‘구성’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어떻게 우리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가? 바렐라(Fancisco Varelar, 1991)에 따르면 신체화된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즉 ‘인지는 미리 주어진 객관 세계에 대한 선형적 주체의 표상적 인식이 아니라, 신체를 가진 세계 내 존재가 세계와 마음을 창출(또는 생성)하는 행위이다. 이 논문에서 나는 바렐라 전통을 따라 감정에 관해 신체화된 활동을 중심으로 논할 것이다. 즉 감정은 표상이 아니라 살아온lived 신체를 통해 느끼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다.

II. 행화주의의 특징과 감정

최근 영미권 동향을 보면 바렐라 전통을 따르는 철학자들이 감정에 관해서 행화주의를 통해 신체화된 감정의 역동적인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후토(D. Hutto)를 선두로 하여 이러한 시도가 이루어졌고(2013, 2014,~현재), 아주 최근에는 프린츠Jesse Prinz 자신도 자신의 체화된 평가로서의 감정 이론(2004)을 수정한 제한된 행화주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2018).⁴⁾ 나는 정신적

3) 국내 학자들 중에서는 유권중 (2004), 박충식 (2004)이 있다.

4) 2004~2013까지 약 10년간 제시 프린츠는 감정에 관한 체화된 이론을 제시했다.

표상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감정을 오직 신체적 상태와 행동과 관련된 것으로 보는 후토의 급진적 행화주의는 피하면서, 프린츠 초기이론 (2004)처럼 감정을 두뇌에 국한된 표상으로 보지 않고 환경과 유기체의 상호작용 영역 안에서 창발하는 것으로 보는 행화주의를 제안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인간과 세계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주요한 개념인 ‘어포던스 (affordance 행위가능성)’개념을 통해 논하겠다.⁵⁾ 이를 위해 나는 어떻게 마음이 의미를 만드는지 enaction에 대한 바렐라 Francisco Varelar의 생각에 주목한다 (Varela, 1991). 바렐라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행위를 창출함 enaction”은 “생성 to bring forth”이다. 즉 행화 enaction은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화는 존재론적이다.

행화주의는 인지과학에서 오랫동안 연구해온 인지 과정의 방법에 대한 불만으로 시작된 학제 간 연구프로그램이다(Di Paolo & Thomson 2014; Gallagher 2017). 특별히 두 가지의 행화주의 주제가 감정 이론과 관련이 있다. 첫째는 인지자가 외부 세계와의 관계를 통해서 하게 되는 능동적 역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외부 세계는 행화주의자들에게는 주어지거나 수동적으로 추적된 것이 아니라 인지자들의 “의미를 만드는 sense-making” 힘에 의해 능동적으로 형성되고 만들어진 (enacted) 것이다. 이와 같은 능동적으로 “의미 만들기 sense making”가 행화주의가 이해하는 바로서 인지의 핵심에 있다. 이와 같은 능동적 의미 만들기는 ‘자가생성체계’를 갖는 모든 유기체에 해당한다(Thompson, 2007).

그는 체화된 평가로서의 감정 이론을 제안했다. 그에 따르면 감정은 핵심 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신체의 상태에 대한 지각이다(Prinz, 2004). 이러한 이론은 행화주의와 어떤 특징들을 공유한다. 하지만 최근 10여 년간 프린츠의 이론은 여러 반박에 직면한다. 따라서 만일 행화주의 접근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체화된 평가 이론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프린츠의 체화된 평가로서의 감정 이론에 관해서는 필자의 논문 2007, 2011, 2013, 2016을 참고하시오.

- 5) 국내에서도 ‘어포던스’에 관한 논의는 다수 존재한다. 인지과학 분야에서는 대표적으로 배문정 (2014)이 있고, 철학 분야에서 대표적으로는 노양진 (2019)이 있다.

두 번째 주제는 체화된embodied, 내재된embedded, 확장된extended 인지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전통적 인지과학이나 신경과학이 신체의 나머지 부분에서 분리된 두뇌와, 환경에 독립적인 두뇌에 초점을 맞추어 온 것과는 달리 행화주의는 두뇌와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역동적으로 전개되는 신체와 환경의 인과적 상호작용을 무시한다면 인지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행화주의의 또 다른 특징은 생활세계 혹은 사회적 환경에 주목하는 것이다. 일부 행화주의자들은 복잡한 인지 능력이 외부 세계에 의해 제공된 비계 scaffolding에 의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특별히 감정 이론가들이 호감을 가질 만하다. 왜냐하면, 한편으로 그와 같은 생각은 사회적 환경에서 대인 관계적 의사소통을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Griffiths & Scarantino 2009). 다른 한편으로는 감정이 두뇌에 좁게 국한된 것을 넘어 존재론적으로 확장되는 장점이 있다(Krueger 2014; Colombetti & Roberts 2015; Colombetti 2017).

행화주의는 신체가 단순히 물리적 구조라기보다 경험된 구조라고 보는 현상학 전통의 핵심적 개념들에 영향을 받았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우리가 거주하는 세계, 즉 “Umwelt”에 국한된다. 최근에 행화주의를 감정 설명에 적용하고자 하는 콜롬베티(2014)는 현상학이 감정에 관한 정서 신경과학을 질적으로 향상시킨다고 본다.⁶⁾ 이에 따르면, 내가 상황에 정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은 내 몸에 체화된 감각 능력의 작동 때문이다. 이러한 감각 능력은 내가 접근 가능한 한의 상황과 결합되어 있다. 따라서 감각 능력과 관련된 감정은 가능성에 대한 복잡한 감각으로 이해될 수 있다. 콜롬베티가 감정을 가능성에 대한 복잡한 감각으로 보는 이유는 윌리엄 제임스의 신체적 느낌으로서의 감정 이론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이다.⁷⁾ 윌리엄 제임스는 감정

6) Colombetti (2014).

7) 윌리엄 제임스의 ‘신체적 느낌’으로서의 감정 이론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필자의 논문 [윌리엄 제임스의 감정이론과 지향성의 문제] (2007)를 참고하시오.

에서 신체적 느낌을 중요시했지만 각 개인이 다른 구체적 상황에서 다른 신체적 느낌을 가지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 어려움에 봉착한다. 즉 감정의 개별화를 설명하기 어렵다. 이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콜롬베티는 개별화의 문제를 감정을 느끼는 방식의 차이로 본다. 즉 콜롬베티는 각 개인이 다른 구체적 상황에서 다른 신체적 느낌을 가지는 것을 개체의 환경해석 방식의 차이에서 비롯된다고 본다.⁸⁾ 콜롬베티는 감정의 개별화를 개체의 환경에 대한 해석 방식의 차이로 보면서도 감정의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바렐라의 신경 현상학의 방법을 받아들이는데, 개체의 환경해석과 같은 주관적 측면은 ‘자기보고’와 같은 1인칭 관점을, 그리고 감정의 보편성은 두뇌 이미지 같은 3인칭 관점을 결합하여 설명한다.

행화주의의 특징 중 또 한 가지는 현상학적 측면을 동기 이론 전통과 결합시키기에 적절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행화주의는 인지에 있어 행위의 역할을 아주 강조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에서 나는 감정이 인간의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기 위해 행화주의의 어떤 측면과 Nico Frijda의 동기 이론을 접목할 것이다.

또 다른 행화주의의 두드러진 특징은 반표상주의적 관점이다(Varela et al., 1991; Hutto & Myin, 2013; Gallagher, 2017). 예를 들어 후토(2012)는 감정은 ‘핵심 관련 주제’⁹⁾를 표상하지 않는다고 제안하면서 “감정이 진리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상황을 표상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2012:4)고 제안한다. ‘핵심 관련 주제’라는 용어는 라자루스(R. S. Lazarus)가 강한 인지주의를 피하면서 인지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고안한 것이다. 라자루스는 개인과 세계 사이의 관계에 대한 평가가 인지적 판단에 의해서 수행된다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감정적으로 중요한 대상을 지각하고 나서 인지적 판단을 거친 다음 최종적으로 감정적 상태에 이르게 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인지적 판단은 개념적이며

8) Colombetti (2010), p. 152.

9) 핵심관련주제는 행화주의자들이 거부하는 개념이라 중요하다. 핵심관련주제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필자의 논문 2007, 2013을 참고하시오.

신체와 무관하다.¹⁰⁾ 예컨대, 분노라는 감정은 나와 내 것에 대해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것들이 존재했을 때 그런 것들과 관련된 주제(theme)와 상응한다. 프린츠는 그의 초기의 입장(2004)에서 인지에 관해 라자루스를 따르면서도 윌리엄 제임스의 신체적 느낌을 받아들여 절충적 이론을 제시했다. 그리하여 그는 감정은 사고와 비인지적인 구성요소의 결합이라고 주장한다. 사고에 해당하는 핵심 관련 주제에 대한 표상과 비인지적 구성요소라 볼 수 있는 신체적 변화에 대한 내적 반응인 체화된 상태, 이 두 요소를 결합하면 소위 말하는 ‘체화된 평가 이론’이 된다. 이와 같은 이론에 따르면, 한편으로 감정은 신체적 변화를 나타내는 내적 상태, 즉 ‘체화된 상태’이다. 다른 한편으로, “체화된 상태는 핵심 주제를 재현한다. 왜냐하면, 체화된 상태는 핵심 주제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되기 때문이다.”¹¹⁾ 프린츠에 따르면, “만일 우리가 판단이란 개념을 우리의 안녕과 관계있는 유기체-환경의 관계를 표상하는 어떤 정신적 상태로 규정한다면, 체화된 상태는 이와 같은 상태로 특징지어질 수 있을 것이다.”¹²⁾ 평가를 평가적 판단으로 규정한 판단주의자들과는 달리, 프린츠는 평가를 “행복과 안녕을 산출하는 유기체 환경 관계에 대한 어떤 표상”으로 간주한다.¹³⁾ 따라서 프린츠는 주장하길, 만일 우리가 판단을 이와 같이 이해한다면 체화된 상태는 ‘체화된 판단’이다. 그러나 행화주의자인 후토는 ‘핵심관련주제’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후토에 따르면, 예를 들어 공포는 내 앞에 ‘위험’이 있다는 것을 표상하지 않으며, 분노는 나 또는 나의 것에 대한 ‘모욕적’인 것이 있었다는 것을 표상하지 않는다. 감정에 표상적 힘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한 후토의 주된 관심은 그와 같은 힘이 설명적 가치를 갖지 않는에도 불구하고 가정되었다는 것이다. 프린츠는 2004년 그의 책 *Gut Reaction*에서는 감정은 핵심 관련 주제를 표상한다고 생각했었다.

10) R. S. Lazarus (1991).

11) Prinz (2003), p. 80.

12) Prinz (2003), p. 80.

13) Prinz (2004), p. 57.

왜냐하면 감정은 핵심관련주제와 상응하는 기능을 가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2018)¹⁴⁾에 그는 그의 입장을 바꾸었다. 신체화된 감정이 핵심관련 주제를 표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비신체화된 판단도 그와 같은 주제를 잘 표상하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는 다음 장에서 상세히 논하겠다.

대안으로서 샤겔과 프린츠(2018)는 감정에 관한 비 표상적이고 행화적 이론을 받아들인다. 그것에 따르면 감정은 핵심 관련 주제에 대한 표상 때문에, 예컨대 공포는 ‘위험’ 표상 때문에, ‘위험’과 관련된 행동으로, 즉 ‘도망’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관련된 신체를 준비하는 덕분에 행위 할 가능성(도망 가능성)을 만든다.¹⁵⁾ 여기서 프린츠는 표상주의를 포기하면서 세계와 마음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어포던스’ 개념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그는 감정에 앞서 미리 존재하고 동기적으로 무력한 표준적 깊은 전통에서의 어포던스와 다른 “상태 의존적(감정이 일어날 때만 일어나고) 명령적인 의미의 어포던스를 주장한다.¹⁶⁾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공포는 도망을 향해 행위자를 끌어당기는 역동적 유인자로서 작동하고, 공포가 없을 때는 없을지도 모르는 도망을 위한 가능성을 만들어낸다. 그렇다면 공포에 관한 행화적 내용(공포로 인해 만들어질 행동가능성)은 ‘위험’이 아니라 공포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충동과 함께 도망쳐야만 하는 어떤 상황의 현존이다. 그와 같은 내용은 특별히 체화적이다. 왜냐하면 그것 즉 ‘공포’는 도망을 위한 신체적 준비와 관련되기 때문이다.

비 표상주의 전통에 선 감정에 관한 행화주의 이론에 대한 핵심적 도전은 감정과 관련된 행위의 규범성을 설명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의 공포가 그녀 그녀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 피하도록 움직였고, 어떤 사람의 분노가 그녀

14) 프린츠의 최근 입장에 관해서는 다음의 논문을 참조. “An Enactivist Theory of Emotional Content”, in Hichem Naar and Fabrice Teroni (eds.), *The Ontology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0–129.

15) 감정과 행동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Griffith와 & Scarantino (2009)와 Hufendiek (2016)에서 상세히 잘 다루어지고 있다.

16) Shargel & Prinz (2018), p. 119.

그녀로 하여금 어떤 이를 공격하도록 동기 부여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그와 같이 피하도록 동기 부여한 것이 ‘위험’인지 아닌지 그리고 보복하도록 동기 부여한 것이 ‘모욕’인지 아닌지를 묻게 될 것이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감정을 일으키는 환경과 관련하여 그것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묻는다. 프린츠의 최근의 입장(2018)은 비표상주의이지만, 그의 초기의 체화된 평가로서의 감정이론(2004)은 표상주의이다. 초기에 그는 드레츠키의 표상이론을 받아들인다. 드레츠키에 따르면 심적 표상은 어떤 것에 의해 신빙성 있게 야기된 상태이며, 진화나 학습을 통해 그것을 탐지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¹⁷⁾ 이를 감정에 적용해 보면, 감정은 ‘위험danger’과 ‘상실loss’ 같이 감정을 유발하는 공통적인 속성들인 ‘핵심 관련 주제들core relational theme’을 표상한다. 프린츠에 따르면, 신체적 지각이 유기체-환경 관계를 표상하는 방식은 ‘올바른 인과적 관계’를 통해서이지 ‘개념을 사용하거나 기술description을 통해서’가 아니다.¹⁸⁾ 즉 그에 따르면 감정의 적절성은 신체적 지각이 유기체-환경 관계를 ‘신빙성 있는 인과관계’를 통해서 ‘핵심관련 주제’를 표상하면 적절한 감정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표상주의 감정이론에서 만일 감정이 핵심 관련 주제를 표상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형태의 적절성이 어떻게 의미 있게 다루어질 수 있는지는 열린 질문이다. 이런 어려움 때문에 프린츠(2018)는 행화주의를 택하게 된다. 왜냐하면 행화주의자들에 따르면 핵심관련주제를 표상하지 않고도 의미있거나 적절한 감정들이 많기 때문이다. 행화주의의 감정의 규범성 문제에 관해서는 이 논문의 3-4)에서 다룰 것이다.

17) F. Dretske (1986) 참조.

18) Shargel & Prinz (2018), p. 119.

Ⅲ. 어포던스에서 행화로: 프린츠의 제한된 행화주의를 중심으로

1. 어포던스

최근에 프린츠는 행화주의가 감정을 설명하는 데 있어 인지에 관해 적절한 접근이라고 주장한다.¹⁹⁾ 프린츠가 영감을 받은 행화주의 접근은 Francisco Varelar 입장인데, 그는 어떻게 마음이 의미를 만드는지에 대한 바렐라의 입장에 주목한다.²⁰⁾ 여기서 “enaction”이 그 견해에 대해 잘 나타내고 있다. 바렐라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데, 첫째는 “행위를 만들 enact”은 “초래함 to bring forth”이다. 즉 행화enaction는 어떤 것을 존재하게 함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행화는 존재론적이다. 그것은 새로운 것을 창조한다. 둘째, 행화는 행위에 연루된다. 우리는 우리의 신체와 함께 어떤 것을 함으로써 어떤 것을 존재하게 만든다. 이러한 것은 인지에 관한 체화된 이론인데, 그 이유는 정신적 활동이 신체의 활동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²¹⁾

“초래함”이라는 개념은 표상에 관한 표준적 설명과 대조되는 의미이다. 표상에 관한 표준적 입장에서 핵심적 특징은 세계가 미리 주어지고, 마음속에 있는 모델이나 기호들에 의해 재현되도록 기다려지는 마음 독립적인 실재, 속성들 그리고 관계들이 있다. 이와 반대로 행화enaction는 유기체가 정신적 프로세스를 가하기 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들을 환경에 추가하는

19) Shargel & Prinz (2018), p. 117. 하지만 그는 많은 행화주의자들이 받아들이는 몇 가지 특징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제한된 의미의 행화주의라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린츠는 확장된 인지, 창발, 그리고 현상학적 방법론에는 찬성하지 않는다. 그 외에도, 프린츠는 행화주의가 인지에 관한 보다 더 일반적이고 가장 최선의 접근이라는 주장은 거부한다.

20) Varela (1991).

21) Shargel & Prinz (2018), p. 117.

일종의 창출의 과정을 함축한다. 체화된 이론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창출이 일어날 수 있는지에 관한 설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어떻게 우리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을 바꿀 수 있는가? 바렐라에 따르면 신체화된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

프린츠가 보기에 이러한 생각은 감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첫째, 프린츠에 따르면 감정은 신체적 상태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와 같은 신체적 상태를 통제하는 내적 과정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체화된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신체적 상태는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 각각의 감정적 상태는 특수한 종류의 행동, 즉 도망, 공격, 물러남 등등의 행동을 수행하는 신체적 패턴과 관련된다.²²⁾

프린츠에 따르면 감정의 내용은 미리 주어진 (pre-given) 세계를 통해 특징짓기가 어렵다. 마음이 실재를 만들어낸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세계의 어떤 특징들은 개별적인 인지자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그들은 신체화에 반대하여 신체에서 특별한 변화 없이도 수행될 수 있는 정신적 프로세스의 예를 든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은 행위와 관련된 감정, 그리고 상황에 특수한 감정의 경우에 설득력이 없다. 프린츠는 특별히 감정이 미리 주어진 세계의 특징들을 표상한다는 생각에 대해 반기를 든다.

행화의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신체화와 초래함)을 놓고 볼 때, 이제 우리는 감정에 관한 행화주의가 체화된 이론을 재평가하기에 왜 좋은지를 알 수 있다. 비 개념적 견해²³⁾와 마찬가지로, 행화주의 접근은 표상에 관한 전통적 입장을 거부한다.²⁴⁾ 그러나 비개념주의자들과 달리 행화주의는 체화

22) 이러한 입장에 관해서 프린츠는 ‘체화된 평가’로서의 감정(2004)과 ‘유인가 이론’(2010)을 통해 설명한 바 있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필자의 글 2007과 2013을 참고하시오.

23) 감정에 관한 비 개념적 입장의 대표적 이론가는 되링(2009), 태폴릿(2012, 2013)을 들 수 있다. 감정에 관한 비개념적 견해에 대해서는 필자의 글 2013과 2015를 참고하시오.

24) 감정에 관한 비 개념적 내용을 주장하는 이론가들은 지각이론에서 비개념주의를

된 활동들이 어떤 의미에서 세부적인 의미를 제공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그리고 절충주의자들과 달리 행화주의는 감정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냉정한 인지적 상태를 가정하지 않고 오히려 체화된 활동에 의미를 둔다. 그 이유가 곧 분명해질 것이지만, 행화주의 견해는 신체의 실제적 변화를 참조함으로써 감정의 의미를 부여한다. 그리하여 이 이론은 체화된 평가 이론보다 더 환경 속에 있는 사물들과 공변을 기대할 수 있는 결합력이 있다.²⁵⁾

행화주의 이론은 어포던스 입장과 가장 유사하다. 어포던스는 지각과 관련하여 많이 언급된다. 이에 따르면 우리의 신체가 가진 여러 측면 때문에 지각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망치를 ‘볼 때’ 망치가 손으로 쥘 수 있는 물건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그것의 손잡이는 우리와 같은 손에 의해서 쉽게 잡힐 수 있는 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어포던스 이론에 따르면, 어포던스의 지각은 실제 모터 계획에 의해 발생한다. 즉 망치가 현존할 때 우리는 쥐고자 한다. 이러한 것은 의미가 신체적 활동에 의해 탄생한다는 것과 유사하다. 그러나 어포던스를 최초로 제안한 깁슨에 따르면 어포던스(행위가능성)는 어포던스가 인식되지 않을 때조차도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대상들의 두드러진 특징이다. 망치는 우리가 보지 않아도 쥘 수 있음의 특징을 갖는다. 어포던스 이론은 신체화에 보다 친밀하게 의미를

주장한 팀 크레이인의 입장을 따른다. 팀 크레이인에 따르면, 내가 창문 너머 있는 나무의 나뭇잎들을 바라볼 때, 한 나무에 매달려 있는 나뭇잎들의 색깔이 여러 가지 면에서 약간씩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때 우리의 지각은 미세한 차이를 개념화할 수 없다. 감정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데, 비행 공포증의 경우 어떤 사람은 안전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공포를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공포를 느끼지 않는 것은 감정의 내용이 지각의 내용과 유사하게 개념화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감정이 비 개념적이라는 것은 감정 경험이 1인칭 영역에 속하는 현상학적 경험과 관련된다는 것이다. 존 데이에 따르면 감정이 갖는 질적 느낌의 특성은 말이나 글로 표현하기가 힘들다. 만일 강한 인지주의자들처럼 감정을 판단으로 환원할 수 있고, 명제적 내용을 갖는 것으로 보게 되면 이러한 점을 설명할 수 없다. 감정에 관한 비개념주의에 대해서는 필자의 논문 2013, 2015를 참고하시오.

25) Shargel & Prinz (2018), p. 118. 참조.

연결시킴으로써 감정에 관한 그 라이벌 이론보다 더 많은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이론이다. 라이벌 이론(표상주의)에 따르면 감정에 선행하여 우리 앞에 어떤 것이 존재하고 감정은 그것에 대한 표상을 통해 일어난다. 그러나 프린츠는 행화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표상주의를 포기한다. 그리하여 감정의 내용은 감정에 선행하여 세계에 존재하는 그런 종류의 내용이 아니다.

그러나 감정의 내용이 표상적이지 않다면 어떤 내용일 수 있는가? 이러한 것은 어떤 특수한 예를 들지 않고는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다. 이러한 것은 다음 절에서 논하겠다. 그러나 감정의 내용을 말하기 위해 프린츠는 어떻게 감정이 의미를 산출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이를 위해 그는 어포던스 개념을 받아들인다. 어포던스는 행위를 위한 가능성이다. 우리는 감정을 통해 행위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창출한다. 감정의 신체화는 새로운 행위를 가능하게 만든다. 왜냐하면, 감정을 느끼면서 신체가 이전에 할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쉽게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되기 때문이다.

어떤 행동이 실제의 신체적 변화 때문에 강화되었을 때, 특정의 행동 과정은 단순한 가능성에서 역동적인 끌림이 있는 어떤 것이 된다. 특별히 강화된 행위는 두드러진 선택지가 되고 명령적으로 동기부여가 된다. 신체가 행위를 하도록 준비할 때, 우리는 행동의 특정 라인을 향해 그 자체로 끌리게 된다. 동기는 내적인 것이지만 그것은 행위를 하도록 명령할 뿐만 아니라 체화된 상태로서(우리의 신체를 밀고 끄는) 행동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표상주의를 포기하고 감정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어포던스 개념을 받아들인 프린츠의 입장은 깁슨주의의 어포던스와 차이가 있다. 즉 깁슨주의에 따르면 시각에 있어서 어포던스는 그것들이 인지되건 안 되건 무관하게 그 자리에 있는 속성들이다. 따라서 깁슨주의 어포던스는 성향적이고 결론적으로 그것들은 동기적이지 않다. 그러나 감정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프린츠는 이와 다른 의미의 어포던스를 받아들인다. 깁슨의 어포던스와 프린츠의 어포던스는 ‘가능성’과 ‘강화’ 간의 차이이다. 즉 깁슨주의 어포던스는 성향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가능적 행위이다. 깁슨주의 어포던스를 감정

에 적용하면, 예를 들어 ‘화’는 신체의 변화가 없이 성향적 속성으로서 보복성 어포던스를 ‘표상’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철수는 길 가다가 마주친 어떤 사람에게 매번 공격할 수 있는 (성향으로서) 어포던스가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인데, 이는 이상할 것이다. 따라서 감정적 어포던스는 신체에 있어서 변화가 실제로 일어날 때만 생긴다고 봐야 한다. 그와 같은 변화가 신체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고, 그리하여 그것은 동기부여를 가져온다. 이와 반대로, 김슨의 어포던스는 우리로 하여금 어떤 명령도 할 필요가 없는 성향적 속성이다. 반면에 우리가 감정을 느꼈을 때 그 감정적 내용은 행위의 촉발을 요구한다. 지각과 관련된 김슨의 어포던스와 달리 감정과 연관된 어포던스는 감정이 일어났을 때만 전형적으로 일어난다. 그런 의미에서 감정적 어포던스는 상태 의존적이다. 김슨주의 어포던스는 환경의 속성으로, 즉 환경이 유기체의 행위를 유발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유기체의 신체적 상태에 독립적이고 동기적으로 무력하다.²⁶⁾ 따라서 프린츠는 어포던스 이론을 감정에 적용한 그리피스와 스카란티노의 어포던스의 입장을 받아들이긴 하지만 앞에서 말한 김슨과의 차이는 분명히 하고자 한다.²⁷⁾

프린츠가 김슨과 차별을 두고자 변형된 의미로 받아들인 상태 의존적이고,

26) 익명의 심사자께서는 김슨의 어포던스는 환경이 유기체의 행위를 유발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김슨의 어포던스도 상태 의존적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필자가 보기에 프린츠가 말하는 상태 의존성은 유기체의 신체적 상태를 의미하므로 김슨과는 차이가 있는 것 같다.

27) Griffith와 Scarantino (2009)는 ‘어포던스’ 개념과 ‘행위 경향성’을 통해 감정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제안한다. 예를 들어, 기존의 감정에 관한 기본감정 이론에 따르면 화(anger)는 공격할 수 있다는 사실을 표상하고 수치심은 다른 사람이 우세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Griffith와 Scarantino (2009)는 이러한 입장을 좀 더 세련화시키는데, 그들에 따르면 ‘화’가 만들어낼 수 있는 ‘행위가능성’을 ‘공격’ 대신에, ‘보복성’ 어포던스라고 본다. 그리고 ‘화’라는 감정의 어포던스가 ‘공격’이 아니라 ‘보복성’이라고 보면 맥락에 의존하는 많은 다른 형태의 화(분노)-빠짐, 모욕, 격분-를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이론은 ‘새로운 기본감정이론new basic theory’이라 불린다. ‘새로운 기본감정이론new basic theory’에 관한 논의는 현재 계속 진행 중이며, 이 논문의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기에 다른 기회에 다루도록 하겠다.

명령법적인 어포던스는 신체화와 잘 결합되는 매력적인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어포던스는 신체가 동요를 일으킬 때 일어나고, 행위를 위한 동기부여를 하는데, 그 이유는 그와 같은 동요가 우리를 밀거나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론은 전통적 체화된 이론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보다 더 잘 마음의 내용과 신체적 변화를 연결해준다. 그것은 또한 감정적 내용은 세계에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창출된 것이라는 것을 함축한다.²⁸⁾ 행화주의 감정의 이와 같은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회적·비사회적 감정을 나누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사회적 감정과 비사회적 감정

감정은 사회적인 것과 사회적이지 않은 것으로 분류된다. 프린츠는 행화주의 시각에서 적어도 감정의 내용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감정과 비사회적인 감정 둘 다 분석 가능하다고 주장한다.²⁹⁾ 프린츠는 모든 감정을 행화주의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행화주의가 감정을 설명할 수 있는 폭을 보여주하고자 한다.³⁰⁾

먼저 프린츠는 비사회적 맥락에서 행화적 감정의 상황 의존적 본성을 보여주는 예로 시작한다. 해변에서 떨어져서 수영하는 사람은 강한 역류에 고군분투하기 시작하다가 그녀가 돌아가야만 할 강인함을 취해야 하리라는 것을 깨닫는다. 공포 상태에 들어간 탓에 그녀의 신체는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에 도움이 되는 강력한 행위를 하기 위해 더욱 강력하게 움직인다. 이와 같은 신체적 변화는 중요한 결과를 갖게 된다. 공포 이전에 바다는 도망칠 장소가 아니라 수영을 즐길 장소와 같은 것이었다. 신체적 반응은 실제로 도망하기에 효과적인 반응에 의해 도망을 두드러지게 만든다. 나아가 신체적

28) 프린츠는 이전의 책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s*(2007)에서부터 구성적 감정주의를 주장해 왔다.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논문, 2011과 2016 참고.

29) Shargel & Prinz (2018), p. 120.

30) Shargel & Prinz (2018), p. 120.

변화는 그녀가 공포에 빠지기 전에 엄청나게 격렬해진 물을 가로질러 수영하는 것을 실제로 가능하게 해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공포는 그녀에게 있어 변경된 어포던스와 같은 것이다.³¹⁾ 즉 감정이 어포던스(행위 가능성)를 변경시킨다(강화한다). 그러나 일상적 의미에서 어포던스 개념은 이와 같은 종류의 상황 의존적 변화를 허용하지 않는다. 깃슨주의 어포던스는 행위에 관한 지속적인고 변치 않는 가능성이다. 왜냐하면 깃슨의 어포던스는 환경의 속성, 즉 환경이 유기체의 행위를 유발하는 속성이기 때문에, 변화 가능성은 오직 오랫동안의 훈련을 통해서이다. 오직 오랫동안의 훈련을 통해서만 어떤 물속에서도 가로 지을 수 있는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 수 있고, 심지어 위에서 든 예의 수영자는 그와 같은 훈련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대양은 그녀에게 도망이 아니라 수영을 재창조할 수 있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³²⁾ 그렇지만 감정, 이 경우 공포는 그녀의 힘을 증가시키고 그녀가 원래 하고자 했던 행위를 변화시킨다.

두 번째 예를 들어 보겠다. DJ가 그의 최애 곡을 틀 때 댄서는 짜릿한 기쁨을 느낀다. 공포처럼 기쁨도 신체를 움직이게 만든다. 그리하여 그 댄서는 좀 더 강하게 길게 춤을 출 수 있다. 다른 유형의 행위도 그에게 가능하다. 즉 그는 술을 마실 수도 있고, 휴식을 취할 수도 있고 집에 갈 수도 있으며 잠깐 잠을 잘 수도 있다. 그 대신에 그 댄서의 흥겨운 신체적 움직임은 그가 그 음악에 대해 춤을 만드는 명령적 힘을 갖는다. 기쁨은 그에게 여분의 힘을 주고 그에게 춤을 출 수 있게 해주고 그럼으로써 춤추는 것을 의미 있는 선택으로 만들어 준다. 기쁨 없이 춤춘다면 그는 더 오랫동안 춤출 수 없을지도 모른다. 이처럼 감정, 이 경우 기쁨은 댄서의 힘을 증가시키고 그가 원래 하고자 했던 행위를 변화시킨다.

공포는 위협을 느끼는 사람에게 더 도망갈 수 있게 만드는 자원들을

31) Shargel & Prinz (2018), p. 120.

32) Shargel & Prinz (2018), p. 120.

동원한다. 기쁨은 기회들을 더 많이 달성할 수 있게 하는 자원들을 동원한다. 그러나 때때로 편안한 즐거움의 경우에 어떤 것도 원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감정이 행위를 촉발하지 않을 수 있고, 또 슬픔의 경우, 회복할 수 없는 ‘상실’로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도 행해지지 않을 때도 있다. ‘상실’로 인해 어떤 것도 행하지 않는 경우 적응적 반응은 어떤 것에 도달하기 위해 어떤 신체적 자원을 소모하는 것을 피하는 것이다.³³⁾ 우리의 신체는 어떤 행동을 하는데 더욱 애쓰게 만들고 명령적인 것에 개입하지 않고, 물러서고, 무기력하게 남는 상태로 바뀌게 된다.

행화주의 견해는 또한 사회적 감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여기서 프린츠는 사회적 감정의 경우에 있어서 명령적이고 상황 의존적인 감정의 어포던스를 강조하긴 하지만, 그리피스와 스카란티노(2009)로부터 영감을 얻는다. 그는 육상경기의 선수의 기쁨을 예로 든다. 기쁨은 종종 비사회적 맥락에서 일어나지만 그리피스와 스카란티노가 지적하듯이, 또한 사회적 형태의 기쁨도 있다.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 가치 있는 것으로 평가된 어떤 것을 하는 것에 의존하는 기쁨이 그러한 것이다. 우리는 사회적 경우에 해당하는 “자부심”이라는 말을 사용할 때 이와 같은 구분을 하는 것이 유용하다. 그리피스와 스카란티노는 우수한 선수는 사람들이 볼 때만 미소를 짓는다는 사실을 보이는 연구를 소개했다.³⁴⁾ 육상선수의 미소는 그녀가 그녀의 성취에 만족하는 청중들에 대해 확인을 해주는 것이다. 이와 같은 신호를 통해서 중요한 사회적 이득을 수행할 수 있는 자원들을 동원한다. 그녀의 미소는 가능적으로 자기편이 될 수 있는 중립적 관찰자들을 변화시킨다. 왜냐하면, 미소는 전염성이 있고, 우리 모두는 성공의 기로에 있는 사람들과 협동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 감정들은 단순히 사회적 관계들을 표상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들은 감정을 갖는 사람들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감정을

33) Shargel & Prinz (2018), p. 121.

34) Shargel & Prinz (2018), p. 121.

가지고 상호작용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사회적 어포던스를 산출한다.

분노 표출도 유사한 패턴을 따른다. 분노 표출을 통해 자기 편인 사람들의 이득이나 가치를 창출하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득이나 가치를 좌절시키기 위해 공격적으로 준비한다. 사회적 표현들은 새로운 사회적 실재들을 창출한다. 그리고 그것들은 예를 들어 신체의 동원을 통한 상황 의존적이고 명령적인 어포던스와 같은 비사회적인 경우들이 갖는 특징을 뚜렷하게 알림으로써 그렇게 한다. 분노는 공격적 행위를 위해 신체를 동원한다. 이때 신체를 동원한 분노 표출은 분노 상태를 유발하는 사람과 관련한 어포던스로 변환할 수 있다. 어포던스를 김슨처럼 환경이 유기체의 행위를 유발하는 속성으로 보게 되면 분노의 경우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시간에 공격적일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인데 이는 이상하다. 신체적으로는 가능할지라도 우리는 분노 상태를 유발한 사람과 관련된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을 공격하도록 동기 부여됨을 거의 느끼지 않는다. 심지어 사람들이 공격적으로 행동할 때조차도 그들이 공격성을 띤다고 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환경이 유기체의 행위를 유발하는 속성으로서 김슨의 어포던스를 받아들이면 감정적 어포던스는 성향적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렇게 되면 분노는 조건이 주어지면 공격적으로 되는 성향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침략적으로 공격에 반응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피하거나 굴복하거나 의존하거나 걱정하거나 애교 있는 사랑을 표시하거나, 멍하게 무관심하거나 등등의 방식으로 공격에 반응할 수 있다. 이렇게 감정적 어포던스는 상태 의존적이다. 감정 표현은 행동으로 나가기 전의 신호이고 행위는 그것을 강화하도록 동기 부여한다. 이렇게 감정 표현과 행동을 통해 감정이 있기 전에는 거기에 없었던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창출한다.

프린츠는 이러한 예들이 상황 의존적이고 명령적인 어포던스가 비사회적이고 사회적인 감정에 적용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친 그림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프린츠는 우리의 감정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행화적 내용이 작동하는지를 보여주고

자 한다. 그가 *Gut Reaction* (2004)에서 위협, 상실, 모욕과 같은 핵심 관련 주제를 통해 감정을 설명한 것과 달리, 이제 그는 감정은 행위를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산출하고 이 행해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어포던스 공간이 바뀌는 그런 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이다.³⁵⁾

3. 감정의 내용

이상과 같이 몇 가지 예를 제시한 후, 프린츠와 샤겔은 이제 행화주의 이론의 함축에 대해 말한다. 프린츠는 이상을 고려해 볼 때 그의 이전의 체화된 평가³⁶⁾로서의 감정 이론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고 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행화주의 접근을 통해 기존의 견해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말한다.³⁷⁾

그렇다면 프린츠는 그의 이전 이론, 즉 체화된 평가로서의 감정 이론이 어떤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가? 그에 따르면 감정은 핵심 관련 주제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는 신체의 상태에 대한 지각이다(Prinz, 2004). 이러한 이론은 행화주의와 어떤 특징들을 공유한다. 하지만 만일 그가 감정을 설명하기 위해 행화주의를 받아들인 것이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면 그의 체화된 평가 이론은 수정되어야만 한다. 첫째, 체화된 평가 이론은 감정의 내용에 관해 잘못되었다. 감정은 ‘위협’이나 ‘상실’과 같은 핵심 관련 주제를 표상한다기보다 그것은 상황 의존적이고 명령적 어포던스를 표상한다. 원리적으로 이러한 수정을 수용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핵심 관련 주제를 넓게 정의할 수 있다. 핵심 관련 주제가 유기체의 안녕을 위한 유기체-환경 관계라고 본다면 핵심 관련 주제인 ‘상실’과 ‘위협’은 반응 의존적 속성이라 할 수

35) Shargel & Prinz (2018), p. 122.

36) 프린츠의 이전 견해는 그가 *Gut Reaction* (2004)에서 주장한 체화된 평가로서의 감정 이론을 말한다.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필자의 논문 2007, 2013, 2016을 참고하시오.

37) Shargel & Prinz (2018), p. 122.

있다. 그런데 프린츠는 이 전의 저서 *Gut Reaction* (2004)에서는 감정의 내용이 반응 의존적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감정의 내용을 ‘명목적 내용’과 ‘실질적 내용’으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 프린츠는 감정이 표현하는 핵심 관련 주제를 ‘실질적 내용-real content’이라 보고, 이는 세계에 의해 결정되는 내용이라 본다. 반면 감정이 등록하는 신체적 변화는 ‘이름상의 내용-nominal content’으로, 이는 마음에 의해 결정되는 내용이라 보며 두 기준을 통해 감정에 적용한다.³⁸⁾ 그런데 프린츠는 최근의 논문 “An Emotional Theory of Emotional Content”(2018)에서 그러한 자신이 입장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닫는다. 왜냐하면, 감정의 내용은 우리의 반응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사실 프린츠는 이와 같은 의존성(반응 의존성)이 색깔과 같은 표준적 2차성질에서 발견되는 것보다 더 하다고 생각한다.³⁹⁾ 만일 로크(1690/1979)가 1차 성질과 2차성질을 구분한 것이 옳다면, 색깔은 감각을 일으키는 힘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힘은 사물이 그러한 효과를 갖지 않을 때도 사물 속에 존재한다. 감정적 내용은 색깔과 같은 성향적 의미에서 우리의 반응에 의존적인 것은 아니다. 감정의 내용은 감정적 상태가 실제로 존재하는 유기체에 의존한다. 나아가 감정의 내용은 명령적이다. 감정은 표준적 2차성질이 결여하고 있는 일종의 행해짐을 내용으로 갖는다.⁴⁰⁾ 예를 들어 공포의 내용은 ‘위험’에 대한 표상이 아니라 공포로 인해 만들어질 행동가능성 즉, 공포로부터 도망쳐야 한다는 충동과 함께 도망쳐야 하는 상황의 현존이다. 로크가 말한 2차 성질은 주관 의존적이지만 주관에게 감각을 일으키는 힘은 사물 자체가 갖고 있다. 그러나 감정의 내용은 감정의 주체에게 행동을 일으키는 힘을 갖고 있다. 즉 그 힘은 주관에 있다는 것이다.

어떤 이는 ‘위험’과 ‘상실’과 같은 용어를 이와 같은 두 가지 특징(상황-의존

38) 프린츠의 명목적 내용과 실질적 내용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필자의 논문 2013을 참고하십시오.

39) Shargel & Prinz (2018), p.123.

40) Shargel & Prinz (2018), p.123.

성과 반응 의존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다. 즉 인지주의자들이 핵심 관련 주제, 예를 들어 ‘위험’과 ‘상실’이 체화된, 다시 말하면 정서적으로 지각될 때만 ‘상실’이라고 간주 된다고 정의 내릴 수 있다. 그리하여 프린츠의 수정된 설명은 여전히 체화된 평가 이론이라고 특징지질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체화된’과 ‘행화’는 중요한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감정의 내용에 있어서이다. 즉 ‘체화된embodied’은 감정에서 감정의 내용이 반드시 행위를 창출하는 것이 아닌 반면, 행화는 행위의 창출과 관련된다.

프린츠가 자신의 이전 *Gut Reaction* (2004) 입장과 결별한 또 다른 이유는 감정적 상태의 상관자와 관련된다. 프린츠는 *Gut Reaction*에서 감정은 신체의 입력 시스템 속에 있는 두뇌에 수반한다고 말한다. 주변 신경 체계와 신체는 배제된다. 행화주의자들은 “정신적 상태”는 신체 속에서 실제의 변화를 포함할 수 있다고 보는 더욱 강한 형태의 신체화를 좋아한다. “An Enactivist Theory of Emotional Content”(2018)에서 프린츠도 이와 같은 입장에 대해 찬성한다. 두뇌와 신체를 원칙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어려우며 일종의 이원론적 사고로 나갈 수 있다. 또한, 프린츠는 우리가 감정적 상태에 있을 때 신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감정의 동기적 측면을 설명한다.⁴¹⁾

프린츠는 이렇게 감정의 내용에 관한 수정된 견해를 가지고 감정의 강도와 관련된 속성들을 재고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말한다. 표상주의 틀 안에서 감정의 강도에 대해 생각하는 두 가지 자연스러운 방법이 있다. 그것은 표상에 대한 신뢰 정도에 따라 감정의 강도가 결정되거나 지각된 특징의 크기에 따라 감정의 강도가 결정될 것인데, 전자가 보다 더 적절해 보인다. 왜냐하면 표상은 마음-세계-적합 방향(mind-world-direction of fit)처럼 믿음이라는 심성 상태의 강도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믿음이라는 심성 상태의 신뢰도는 세계를 얼마나 정확히 표상하는가에 달려 있기에 강한 믿음은 신뢰도가 높은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표상주의를 받아들이면 예를 들어, 사소한 위험에

41) Shargel & Prinz (2018), p.123.

대한 강한 신뢰가 강한 공포를 발생하는 경우, 다시 말하면 별로 위험해 보이지 않는데 위험하다고 확신하여 공포에 얼어버리는 경우를 설명할 수 없다. 표상주의는 이러한 감정을 설명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한다. 감정에 관한 행화주의는 감정의 세기(강도)와 행위에 관한 아주 단순한 설명이다. 감정은 상태 의존적이고, 명령적 어포던스로 바꾼다. 그리하여 강한 감정은 어포던스를 보다 강하게 바꾼다. 강한 공포는 도망을 명령하여 신체를 더욱더 철저하게 도망을 강화하는데 동원한다.

감정이 형식적 대상과 구체적 대상, 두 종류의 대상을 갖는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견해이다(de Sousa 1987; Kenny 1963). 예를 들어, 산길을 가다 독사(구체적 대상)를 만난 경우, 이때 독사의 눈빛이나 혀의 움직임을 보고 나는 나(유기체)의 평안과 안전이 위협받음으로써 핵심 관련 주제인 ‘위험’을 표상하게 되어 공포를 느끼게 된다. 이때 공포의 실질적 내용인 ‘위험’은 유기체와 세계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핵심 관련 주제인 ‘형식적 대상’이다. 행화주의에 따르면, 이와 같은 구분은 어느 정도 분해될지도 모른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어떤 사람을 화나게 만들었을 때, 분노는 분출되기 쉽고 그 사람은 먼저 그 분노를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들도 비난할지도 모른다. 여기에 더하여, 분노를 표현하는 데 있어 어떤 사람은 일시적으로 사회적 관계를 변경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명백한 적개심의 인상을 만들어 낸다.⁴²⁾ 이와 같은 분노의 발산은 일종의 실수라 말해질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들에서 그것은 해가 될 수 있다. 어떤 사람은 최초의 분노 상태를 일으키지 않았던 사람에게 한 공격적 반응에 대해 후회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널리 알려진 측면이다. 그리고 일어나는 관계적 변화들은 현실적이며 설명을 요구한다. 이렇게 표상주의자들이 왜 그러한 감정이 일어나는지, 또는 그러한 감정을 느낄 때 따르는 기준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전제한 ‘핵심 관련 주제’라

42) Shargel & Prinz (2018), p. 126.

던지 ‘형식적 대상’과 같은 것을 거부하고 감정을 상태의존성과 상황 의존성을 통해 설명하게 되었을 때 직면하는 어려움은 감정의 규범성, 또는 적절성의 문제이다. 이에 관해서 간략히 살펴보기로 하자.⁴³⁾

4. 감정의 규범성

감정은 옳거나 그러거나, 적절하거나appropriate 부적절하거나 inappropriate 보증되거나warranted 보증되지 않거나unwarranted라는 정당화 또는 합리적 평가와 관련된다. 우리는 어떤 감정적 반응에 대해 그 사람의 감정적 반응 자체가 ‘부당하고’ ‘부적절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마찬가지로 어떤 감정적 반응은 상황에 ‘적절’한 반면 어떤 반응은 ‘유치한’ 것이고 또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마디로 감정은 합리성, 적절성, 적합성과 같은 ‘규범적’ 속성을 가질 수 있다.

우리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적 반응의 범위를 조절한다. 여기서 프린츠는 자신이 지지하는 행화주의 이론이 구체적 지향적 대상을 가진 감정의 특징을 그려내지 못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사회적 규범은 때때로 그렇게 한다고 주장한다.⁴⁴⁾ 이와 같은 규범을 따르기 위하여 우리는 종종 지향적 대상을 우리의 감정에 부여한다. 우리의 분노가 우리를 화나게 하는데 책임이 없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규범을 위반할 위험이 있을 때 우리는 감정의 명령적 특징을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그 결과 분노가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반응한다. 이러한 반응은 공포의 경우 ‘위협’, 분노의 경우 ‘모욕’과 같은 표상적 내용을 반영하지 않는다. 공포든, 분노든, 그와 같은 경우에 있어 감정의 내용은 세계에 객관적으로 주어진 속성이 아니라 도구적 가치이다. 프린츠에 따르면 감정 이론은

43) 감정의 규범성의 문제는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이다. 필자는 다른 논문에서 이미 이 주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간략히 다루기로 하겠다. 이에 관해서는 필자의 논문 2014, 2016을 참고하시오.

44) Shargel & Prinz (2018), p.126.

감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관한 이와 같은 사실을 반영하기 위해 구체적 대상에 관한 개념을 포기하거나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⁴⁵⁾

이러한 사실은 감정의 합리성에 관해 프린츠에게 또 다른 이슈를 가져온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감정은 진리 또는 적합성과 같은 것에 대해 평가할 수 있는 관습적 종류의 내용을 갖는다. 감정은 세계와의 관계를 표상하기를 목표로한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표상할 수도 있고 부정확하게 표상할 수도 있다. 감정은 그것의 목표에 적합시키거나 적응시키는 데 실패한 상황에서 일어날 때 보증되지 않거나 비합리적이라고 비판받을 수 있다. 인지주의 감정이론이나 표상주의 이론은 이러한 문제에 직면한다.⁴⁶⁾ 행화주의 설명은 감정이 잘못될 수 있는 가능성과도 일관적이다. 그것은 또한 이러한 이슈에 관해 재고할 하나의 방법이 있다. 공포의 경우를 고려해 보자. 프린츠가 말했듯이, 공포는 명령적 어포던스가 존재하게 만든다. 그것은 도피에 대한 충동과 함께 도망갈 수 있는 능력(escapability)으로 해석된다. 표준적 이론에서처럼 행화주의에서도 공포 상태는 객관적으로 말해서 도망갈 필요가 없는데도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것을 허용한다. 행화주의는 어떤 감정적 발생은 부적절하다고 말하기 위한 토대를 밝히고자 할 때 다른 접근으로부터 빌려올 수 있다. 동시에 행화적 내용이 자기충족적인 방식이 있다. 도망갈 수 있는 성질은 감정에 의해서 산출된다. ‘도망갈 수 있음’은 공포라는 감정이 일어날 때 있다. 어떤 사람이 해가 없는 뱀과 같은 온화한 어떤 것에 공포 반응을 한다면 그 사람의 그 감정은 그 상황이 발현시킨 것이다. 그 사람의 그 감정은 어떤 것도 잘못 표상하지 않았다. 감정은 어떤 것을 잘못 표상할 수 없다. 그것은 행위와 연결된 속성을 존재하게끔 한 것이다. 그 사람의 그 감정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도망이라는 행동을 만들어 낸 것이다. 프린츠는 이를 일종의 오작동이라고 말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뱀의 위험성에 관하여

45) Shargel & Prinz (2018), p.126.

46) 이에 관한 상세한 논의는 필자의 논문 2014 참고.

잘못된 믿음에 대해 또는 불필요한 방식으로 행동한 것에 대해 비판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감정 그 자체는 오표상 때문은 아니다. 이러한 것은 감정은 ‘위험’과 같은 핵심 관련 주제를 표상한다고 보는 표준적 이론과 다르다.

그 외에도, 행화주의 이론은 행위와 보다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또 다른 종류의 비합리성의 가능성을 소개할 수도 있다. 어떤 경우에 감정은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행동을 강화한다. 억눌러진 공포의 경우가 그 예이다. 그와 같은 경우에 표준적 이론은 그 공포는 완전히 비합리적이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억누름이 도망칠 수 있음을 막았고 그 결과 도망을 강화하는 감정은 그 속성을 산출하는 데 충분히 성공할 수 없었다. 이러한 것은 프린츠가 보기에는 일종의 불발misfire로서 ‘도망’이라는 속성을 만들어내는 데 실패함이다. 여기서 프린츠는 그와 같은 불발은 어떻게 감정이 잘못될 수 있는지를 논의하는 데 있어 고려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⁴⁷⁾

IV. 맺음말

끝으로 나는 표상과 관련된 이슈에 주의를 환기시키고 논의를 맺고자 한다. 인지에 관한 행화주의의 창시자들은 정신적 상태는 표상적이지 않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한다(Varela et al. 1991). 그러나 대부분의 인지과학자들은 내적 상태는 세계에 있는 사물, 특징, 사건, 사태를 표상하는 것을 목표로한다는 마음에 관한 표상적 이론을 받아들인다. 정신적 표상에 대한 전면적 거부는 급진적 입장이다. 프린츠는 이와 같은 입장은 아니라고 주장한다.⁴⁸⁾ 만일 감정적 내용에 관한 행화주의 설명이 옳다면 감정은 우리 밖에 있는 세계의 특징에 관해 유기체에 정보를 전달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감정은 감정 자체에 선행하여 이미 존재하는 어떤 것에 관해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는다. 그보다는

47) Shargel & Prinz (2018), p. 127.

48) Shargel & Prinz (2018), p. 127.

감정은 어떤 것을 있게 만든다. 이와 같이 있게 된 것(생겨난 것 /만들어진 것)이 일종의 감정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신체가 육식 동물에 반응하여 도망을 준비할 때, 그 신체는 그 육식 동물을 도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본다(표상한다). 그런데 대신에 만일 신체가 공격할 수 있게 준비되면 그것은 그 동물을 직면할 수 있는 것으로 표상한다. 마치 다른 종류의 정신적 내용들처럼, 행화적 내용은 또한 행위와 결정으로 몰고 가고 그리하여 행동을 설명하는 데 있어 역할을 한다. 여기서 “내용”이라는 용어는 유기체에 의미significance와 같은 어떤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표상”이라는 말은 유기체에 의해 표상되기 위해 세계 밖에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용에 따르면, 지시 관계는 마치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이름을 붙이는 것이다. 그것은 고정되고 독립적인 대상을 함축한다. 행화적 내용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만들거나making 하는doing 것이다. 그것은 시작할 때는 없었던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의미에서 감정은 비 표상적이라고 말해질 수 있다. 그것은 마음에 관한 표준적 이론에서 말하는 표상과 다르다.

행화주의에서는 표상한다는 것과 만든다는 것을 대조시키면서 감정이 속성을 창출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러한 점은 이 논문에서 필자가 계속 강조한 바이다. 그렇다면 행화주의의 존재론적 함축은 무엇인가? 만드는 것 또는 창출함은 존재론적 문제들을 낳는다. 두 가지의 존재론적 함축이 있는데, 첫째, 표상적 정신적 상태는 이미 존재하는 속성들을 등록한다고 말해지는 반면, 행화적 내용은 존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감정은 완전히 ‘무’인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세계라는 가구에 덧붙여지는 것이다. 감정 없이는 그들이 만드는 속성들은 존재하지 않을지도 모른다. 이러한 것은 정신이 실재를 구성하는 흥미로운 경우이다. 둘째, 감정이 존재하게 만드는 속성들의 종류는 아주 특이하다. 우리가 앞서 주목했듯이, 그것들은 일상적으로 이해되는 1차 성질도 아니고, 2차성질도 아니다. 그것들을 지각적 내용에 대한 설명에서 사용되어 온 것으로서 단지 어포던스도 아니다. 감정의

명령적 성질은 행해짐 속에서 구성된 속성들이다. 행화주의에서 감정의 규범성은 이렇게 상황 의존적이고 명령적인 속성을 통해 행해짐 속에서 발견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존재론적 함축은 감정적 내용에 관한 다른 이론들이 쉽게 놓치는 것이다.⁴⁹⁾

49) 행화주의 존재론은 기존의 심리철학이나 인지과학의 토대가 되는 존재론과 다르다. 프린츠의 행화주의 감정이론을 다루는 데 있어 필자는 감정과 관련되는 존재론적 측면에만 초점을 맞추었다. 행화주의의 토대가 되는 존재론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시간과 지면의 한계로 다른 연구 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행화주의 존재론의 특징에 대해서도 더 보완할 것을 제안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께 깊이 감사드린다.

참고문헌

- 노양진 (2019), 「기호적 어포던스」, 『범한철학』, 95: 175-195.
- 박충식 (2004), 「구성적 인공지능」, 『인지과학』, 15(4): 61-66.
- 박충식, 유권종 (2004), 「새로운 도덕 심성 모델: 퇴계학, 구성주의, 인공지능」, 한국철학자대회 논문집.
- 배문정 (2014), 「Enactivism을 Enact하기: 번역의 문제를 중심으로」, 『인지과학』, 25(4): 303-341.
- 배문정 (2015), 「체화된 인지와 반표상주의」, 『과학철학』, 18(3): 57-87.
- 양선이 (2007), 「윌리엄 제임스의 감정이론과 지향성의 문제」, 『철학연구』, 79: 107-127.
- 양선이 (2008), 「원초적 감정과 도덕감정에 관한 흄의 자연주의: 진화심리학과 사회구성주의의 화해」, 『근대철학』, 3: 73-114.
- 양선이 (2011), 「공감의 윤리와 도덕규범: 흄주의 감성주의와 관습적 규약」, 『철학연구』, 95: 153-179.
- 양선이 (2013), 「감정에 관한 지각이론은 양가감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인간·환경·미래』, 11: 109-131.
- 양선이 (2014), 「감정진리와 감정의 적절성 문제에 대한 고찰」, 『철학연구』, 49: 133-160.
- 양선이 (2016), 「체화된 평가로서의 감정과 감정의 적절성 문제」, 『인간·환경·미래』, 16: 101-128.
- 이기흥 (2016), 「인지행동치료 제3 흐름의 철학사상적 특성 고찰」, 『대동철학』, 75: 97-131.
- 이기흥 (2017), 「행화주의 마음치유: 시론」, 『철학탐구』, 48: 91-129.
- 이영의 (2015), 「체화된 인지의 개념 지도: 두뇌의 경계를 넘어서」, 『Trans-Humanities』, 8: 101-139.
- 이영의 (2018b), 「행화주의와 창발, 그리고 하향인과」, 『철학·사상·문화』, 28: 118-137.
- Colombetti, Giovanna (2014), *The Feeling Body: Affective Science Meets the Enactive Mind*, Cambridge, MA: MIT Press.

- Colombetti, Giovanna and Tom Roberts (2015), “Extending the Extended Mind: The Case for Extended Affectivity”, *Philosophical Studies*, 172(5): 1243 - 1263.
- Colombetti, Giovanna (2017), “Enactive Affectivity, Extended”, *Topoi*, 36(3): 445 - 455.
- De Sousa, R. (1987). *The Rationality of Emotion*, Cambridge, Mass., London: IT Press, 543-51.
- Di Paolo, Ezequiel and Evan Thompson (2014), “The Enactive Approach”, in Lawrence Shapiro (ed.), *The Routledge Handbook of Embodied Cognition*, pp. 68-78, New York: Routledge.
- Dretske, F. (1986), “Misrepresentation”, In R. Bogdan (ed.), *Belief : Form, Content and Function*, pp. 17-36,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Fijda, Nico H. (1986), *The Emo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10), “Impulsive Action and Motivation”, *Biological Psychology*, 84(3): 570-579.
- Gallagher, Sean (2017), *Enactivist Interventions: Rethinking the Mi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Gibson, James J. (1979), *The Ecological Approach to Visual Perception*, Boston: Houghton Mifflin.
- Griffiths, Paul E. (1997), *What Emotions Really Are: The Problem of Psychological Categorie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Griffiths, Paul and Andrea Scarantino (2009), “Emotions in the Wild: the Situated Perspective on Emotion”, in Philip Robbins and Murat Aydede (eds.), *The Cambridge Handbook of Situated Cogni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437-453.
- Hufendiek, Rebekka (2016), *Embodied Emotions: A Naturalist Approach to a Normative Phenomenon*, London: Routledge.
- (2017), “Affordances and the Normativity of Emotions”, *Synthese*, 194(11): 4455-4476.
- Hutto, Daniel D. (2012), “Truly Enactive Emotion”, *Emotion Review*, 4(2): 176-181.
- Hutto Daniel D. and Erik Myin (2013), *Radicalizing Enactivism: Basic Minds without Content*, Cambridge, MA: MIT Press.
- James, William (1884), “What is an emotion?”, *Mind* 9, (34): 188-205.
- Kenny, A. (1963), *Action, Emotion and Will*, Routledge & Kegan Paul.
- Krueger, Joel, (2014), “Varieties of Extended Emotions”, *Phenomenology and the Cognitive*

- Sciences*, 13(4): 533 - 555.
- Lazarus, Richard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 Nussbaum, M. C. (2001). *Upheavals of Thought*, Cambridge University Press.
- (2004). "Emotions as Judgments of Value and Importance", in R. Solomon (ed.), *Thinking about Feeling: Contemporary Philosophers on Emo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Prinz, Jesse (2004), *Gut Reactions: a Perceptual Theory of Emotion*,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rinz, Jesse (2007), *The Emotional Construction of Moral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Prinz, Jesse (2010), "For Valence", *Emotion Review* 2, (1): 5-13.
- (2017), "How to Do Things with Emotional Expressions: The Theory of Affective Pragmatics", *Psychological Inquiry*, 28(2-3): 165-185.
- Scarantino, Andrea and Paul Griffiths (2011), "Don't Give up on Basic Emotions", *Emotion Review*, 3(4): 444-454.
- Shargel, Daniel and Jesse Prinz (2018), "An Enactivist Theory of Emotional Content", in Hichem Naar and Fabrice Teroni (eds.), *The Ontology of Emotion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10-129.
- Solomon, R. C. (1993). *The Passions*, New York: Doubleday.
- Thompson, Evan and Varela, Francisco J. (2001), "Radical Embodiment: Neural Dynamics and Consciousness", *Trends in Cognitive Sciences*, 5: 418-425.
- Varela, Francisco J. (1992), *Ethical Know-How*, Stanford University Press.
- Varela, Francisco J., Thompson, Evan and Rosch, Eleanor (1991), *The Embodied Mind*, MIT Press.
- Yang, Sunny (2009a), "Emotion, Intentionality and Appropriateness: in Defense of a Response Dependence Theory", *Organon F*, 16(1): 82-104.
- Yang, Sunny (2009b), "The Appropriateness of Moral Emotion and Humean Sentimentalism", *The Journal of Value Inquiry*, 43: 67-81.

【Abstract】

Enactivism on Emotions: Focusing on Prinz's Limited Enactivism

Yang, Sunny

In this paper, I explain the relation between emotions and human action. For this purpose, enactivism is applied to the explanations of emotion. According to enactivism, emotions bring into existence special kinds of properties that did not exist before having emotions, rather than representing the world. In other words, cognition is not the transcendental subject's representational cognition of a pre-given objective world, but the act of creating (or creating) the world and the mind by a being in the world with a body. In this paper, I follow the Varela tradition and focus on embodied activity about emotions. In other words, it is emphasized that emotions are felt through the lived body, not representations. I do not view emotions as brain-bound representations, as Prinz (2004) did earlier. Rather, I propose an enactivism that views emotions as emerging within the realm of interaction between the environment and the organism. To this end, while dealing with the concept of 'affordance', I do not accept Gibson's affordance, that is, affordance as a property that the environment causes the behavior of an organism. Finally, I present an alternative based on Prinz's recent theory (2018).

[Key Words] Emotional Content, Normativity of Emotion, Enactivism, Affordance, Embodied Emotion

논문 투고일: 2023. 04. 03

심사 완료일: 2023. 04. 19

게재 확정일: 2023. 04. 19

